

2000만원 깎아줬더니...

일본차 '불매' 누르고 판매 ↑

5개 브랜드사 10월 판매량 1977대...전월비 79.2% 급증

불매운동으로 급감하던 일본산 자동차 판매량이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할인 공세에 힘입어 지난 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토요타·렉서스·혼다·닛산·인피니티 등 일본차 5개 브랜드 판매량은 1977대로 9월(1103대) 대비 79.2% 급증했다.

이 가운데 혼다는 지난달 806대를 팔아 전월(166대) 대비 무려 385.5% 급상승했다. 지난 9월 각각 48, 46대 판매에 그쳤던 인피니티와 닛산 역시 10월에는 각각 168대, 139대씩 팔면서 200%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토요타도 지난달 408대를 팔아 9월(374대) 대비 9.1% 상승했다.

유독 렉서스만 지난달 판매량이 456대로 전월(469대) 대비 감소(-2.8%)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브랜드사의 10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58.4% 감소한 실적이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불매운동이 본격화한 8월(1398대), 9월(1103대)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실적이다.

특히 인피니티의 경우 전년 동월(150대) 대비 12.0% 오르며 5개 브랜드 중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일본산 차량 판매 실적 증가에 최대 1900만원의 할인 등 적극적인 할인 공세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안에 제고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면 연식변경으로 그

만큼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업체들이 적극적인 할인 프로모션에 나선 것이다.

일례로 전년 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인피니티는 하이브리드 세단인 Q50 S의 경우 최대 1500만원, 대형 SUV인 QX60은 1900만원을 할인하면서 올해 소진해야 할 재고를 모두 털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차 판매량 증가는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의 유례없는 높은 할인 정책 덕"이라며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신 변경 문제 등으로 빠른 재고 소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뉴스1

르노삼성차 '삼성' 떴나?...양사 "신중, 확정된 것 없다"

10년 단위 브랜드 계약 내년 8월 만료...르노삼성, 계약 해지보다 단기 연장 유력



르노삼성자동차 회사명에서 '삼성'이 빠진다는 보도에 대해 르노삼성과 삼성그룹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삼성그룹과 르노삼성차와의 브랜드 이용계약은 내년 8월 만료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14일 '브랜드 계약 해지'에 대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고 현시점에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르노삼성 관계자 역시 "내년 9월 이후 어떻게 할지는 삼성과 논의가 필요하고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지난 2000년 삼성차 지

분 80.1%를 르노 그룹에 매각하면서 르노가 10년 주기로 삼성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 르노삼성차는 후자가 발생한 해에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삼성카드에 지불해왔다. 액수는 400억원 안팎이다.

르노삼성이 브랜드명에서 삼성을 뺄 것이라는 전망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문제는 시점이다.

르노삼성은 내수 판매 부진에다 그 수출을 책임지는 위탁물량 배정까지 불투명해지는 등 심각한 이중

고에 처한 상태다. 국내에서 '삼성'이 가진 브랜드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계약을 다시 연장하진 못하더라도 몇 년 유예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단기 연장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결국 르노삼성과 삼성은 결별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은 최근 국내 생산 차종을 줄이는 대신 르노의 수입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으로서도 더 실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국내에 완성차 합작회사를 가진 삼성그룹이 배터리와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사업을 강화하면서 '완성차사업 재진출'이 재생산되는 게 부담요소다. 한편 포기한 사업에 재진출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 데다가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삼성의 완성차 진출을 견제해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판단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GS건설, '무등산자이&어울림' 오늘 기본주택 개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구역 주택재개발

전용면적 59~130㎡ 1644가구 일반분양



GS건설·금호건설은 15일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분양되는 '무등산자이&어울림'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25개동, 전용면적 39~160㎡ 총 2,564가구로 이중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59~130㎡ 1,644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용도를 높였다.

■ 자이 브랜드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커뮤니티와 조경을 비롯한 특화설계

무등산자이&어울림에는 랜드마크 대단지 어울리는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입주인 자녀들을 위한 공간인 키즈카페와 단지 내 독서실 및 도서관을 비롯해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임옥시설을 갖춘 사우나, 라운지 등 입주인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된다.

상품도 우수하다. 지이에만 적용되는 국내최초 환기형 공기정화시스템인 시스클라인(유상출선)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지이앱 솔루션, 스마트홈 시스템, 미세먼지 알림 보안등, 전력회생형 승강기 등 입주인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상품이 적용 예정이다.

무등산자이&어울림을 고급 브랜드 단지로 건설하기 위한 고급 설계도 적용된다. 각 세대 내 주방 싱판과 벽에 칸스톤(엔지니어드스톤)을 적용하거나, 거실에는 대리석 접합타일 아트월을 적용하는 등 내부 고급 설계에 공을 들였고 외부에는 광주에서 보기 드문 커튼월이 적용됨에 따라 그 희소성으로 인해 향후 가치 상승까지도 기대되고 있다.

■ 교육·편의·공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 우수한 입

지여건의 원스톱 생활 가능

무등산자이&어울림은 교통, 교육, 쇼핑문화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미 갖춘 곳에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단지 인근 효동초, 동신중·고, 동신여중·고 등을 도보 통학 가능하며 호남지역 명문대로 손꼽히는 전남대, 광주교대가 인접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갖춰져 있다.

광주 북구 도심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다양한 생활인프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NC백화점, 이마트, 말바우시장, 전남대 상권 등 생활 편의·문화 시설이 근거리에서 위치해 있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호남고속도로, 제2순환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동광주IC가 가깝고 광주역도 인접하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역시 단지 주변을 지난 예정이라 향후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도시철도 2호선 등 개발 호재 풍부

광주는 현재 재개발 정비사업도 한창이다. 우산구역 무등산자이&어울림을 비롯해 북구, 동구 일대에 약 1만9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추후 일대가 대규모 주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여기에 광주 전역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도 인근에 계획되어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청에서 효천역까지 있는 교통망으로 지난달 착공에 들어갔다. 전 구간이 2025년이면 개통될 예정이다.

무등산자이&어울림 청약일정은 11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27일 1단지, 28일 2단지 순으로 각각 진행되며 청약계약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특히 1단지 2단지 동시 청약 신청이 가능해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무등산자이&어울림 견본주택은 광주시 북구 우산동 392-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예정일은 2022년 9월이다. 분양문의 : 062-719-3007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